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고학년을 중심으로

김현정
배재대학교 주시경 교양대학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yun-Jung Kim

Ju Si-Gyeong Liberal Arts college,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 초등학생 5~6학년 573명을 대상으로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 척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살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동성과 자살행동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29명(5.1%)은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며, 17명(3.0%)은 자살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행동을 보고한 학생은 41명(7.1%)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보호요인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적인 초등학생이라도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낮은 자살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호요인은 초등학생의 충동성에 따른 자살행동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total 573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ed in Seoul. They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of impulsivity, suicide behavior and protective factors. Collected data was examin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irst, a total of 29(5.1%) students reported suicide plan, 17(3.0%) students reported suicide attempts and the rate of suicide behavior was 7.1%(n=41). Second,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protective factors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Also, it was found that the protective factors(individual factor, family factor, peer factor, school facto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rotective factors(individual factor, family factor, peer factor, school factor), impulsivity, suicide behav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Kim(Paichai Univ.)

Tel: +82-42-520-5026 email: counselor@ pcu.ac.kr

Received December 18, 2018

Revised (1st January 10, 2019, 2nd January 28, 2019)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최근 마스크를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자살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송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9월에 발표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은 20.7%로 2015년 14.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살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고위험군 역시 매해 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렇듯 초등학생 자살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자살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자살을 시도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의 자살행동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사망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2]. 자살사고에 비해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는 자살사망에 근접한 위험 변인이지만 국내 청소년 관련 자살 연구는 대상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살사고에 국한되어 있다[3].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위험성이 높은 행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4]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을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를 합해 살펴보았다[4, 5].

과거에는 아동의 경우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낮아 자살은 적어도 청소년기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Mishara [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0%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 8~10세 정도가 되면 자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대학생 시기까지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7].

자살행동에 관한 저연령화는 사춘기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일찍 시작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은 여학생의 경우 평균 11세, 남학생의 경우 평균 12.7세로 예전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빠르고 사춘기 시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8, 개인용]. 특히 사춘기를 막 시작한 초등학생의 경우 급격하게 발달하는 신체에 비해 심리·정서·인지적 발달은 미성숙해 충동성은 강하지만 가정 및 학교환경 스트레스와 친구관계로 인한 우울감 등을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하다[9].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기 욕구를 쉽게 해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10].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대부분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며[11, 12], 청소년 자살의 약 50%가 충동적 자살로 분류된다고 하였다[13]. 또한 한 순간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14] 언제라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8]. 이렇듯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은 오랜 심리적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문제 해결방식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15]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요인[16, 17]과 가족의 지지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요인[18, 19], 또래와의 친밀감과 같은 또래요인[20, 21],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교요인[21]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요인은 스트레스나 좌절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살행동의 위험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살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5, 17, 2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행동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25].

둘째, 가족의 지지, 가족 화목도 등 가족요인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18, 19, 26].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완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5, 27]. 한편 부모로부터의 소외감과 가족지지의 결여는 자살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28].

셋째, 청소년기는 점차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해소하기 때문에 친밀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살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21].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9, 30],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31, 32].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중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교사로 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은 학생일수록 학교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3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지지가 자살사고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35].

하지만 이러한 보호요인에 따른 조절효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요인만이[2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요인만이[37]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등[38]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요인은 그 대상이나 문제 유형에 따라 완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충동성과 자살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이 초등학교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의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초등학교의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에 따라 초등학교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 자료는 서울시 지역의 5개 초등학교 5~6학년 5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88명(50.3%), 여학생이 285명(49.7%)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274명(47.8%), 6학년이 299명(52.2%)으로 6학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2.2 측정 도구

2.2.1 충동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충동성에 해당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39]. 척도 문항은 ‘생각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2.2.2 자살행동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자살계획(‘지난 1년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과 자살시도(‘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를 묻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39].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 ‘1번’(1), ‘2~3번’(2), ‘주 1~2회’(3), ‘거의 매일’(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7로 나타났다.

2.2.3 보호요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청소년들의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보호요인 하위요인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을 사용하였다[39].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요인은 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로 구성된 5문항으로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가정요인은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또래요인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충동성과 자살행동, 보호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을 SPSS 18.0을 사용해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 실태

초등학생의 자살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험 유무에 따라 이항 변수화하여 처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살계획은 5.1%(29명), 자살시도는 3.0%(17명), 이 둘 중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살행동은 7.1%(41명)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별, 학년별로 자살행동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나 차이가 없었다.

Table 1. Analysis of Suicide behavior

variables		N	%
suicide plans	nonexistence	544	94.9
	existence	29	5.1
suicide attempts	nonexistence	556	97.0
	existence	17	3.0
suicide behavior	nonexistence	532	92.9
	existence	41	7.1

3.2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의 관계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동성과 보호요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동성과 보호요인 중 개인요인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372, p<.01$) 다음으로 학교요인($r=-.338,$

$p<.01$), 가정요인($r=-.333, p<.01$), 또래요인($r=-.229,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1, p<.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1. Impulsivity	1.00					
2. Suicide Behavior	.211**	1.00				
3. individual	-.372**	-.213**	1.00			
4. family	-.333**	-.252**	.689**	1.00		
5. peer	-.229**	-.166**	.554**	.490**	1.00	
6. school	-.338**	-.156**	.517**	.529**	.434**	1.00
M	1.91	0.11	15.24	6.90	3.32	3.26
SD	1.86	0.54	4.14	1.63	1.04	1.12

3.3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 조절효과 검증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언변인은 평균 중심화(centering)를 한 뒤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살행동에 대해 충동성과 개인요인은 준거변인 변량의 총 6.6%를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2.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beta=-.512, p<.001$). 그리고 충동성은 가족요인과 함께 자살행동을 8.1%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 충동성과 가족요인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4.1% 더 증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41, p<.001$). 다음으로 자살행동에 대해 충동성과 또래요인은 준거변인 변량의 총 5.9%를 설명하였으며($p<.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1.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beta=-.320, p<.05$). 마지막으로 충동성은 학교요인과 함께 자살행동을 5.3%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 충동성과 학교요인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1.9% 더 증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6, p<.05$).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D.V	I.V	β	R ²	ΔR^2	ΔF	
Suicide Behavior	1	impulsivity(A)	.152*	.066	.066	12.892**
		individual(B)	-.157**			
	2	Impulsivity(A)	.677**			
		individual(B)	.019			
	A×B	-.512**	.091	.025	15.881**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43*	.081	.081	22.948**
		family(B)	-.204**			
	2	mpulsivity(A)	.899**			
		family(B)	.031			
	A×B	-.741**	.122	.041	26.305**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82**	.059	.059	8.880*
		peer(B)	-.124*			
	2	mpulsivity(A)	.487**			
		peer(B)	.000			
	A×B	-.320*	.070	.011	6.928*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78**	.053	.053	4.893*
		school(B)	-.096*			
	2	mpulsivity(A)	.520**			
		school(B)	.080			
	A×B	-.356*	.072	.019	11.926*	

**p<.001, *p<.05

4.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충동성, 자살 행동, 보호요인의 관계와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이 충동성과 자살행동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5~6학년 5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생의 5.1%는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며, 3%는 자살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행동을 보고한 학생은 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생의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이 1.6%~3.8%라는 연구 결과들과[39, 40, 41]을 상회하는 결과로 중·고등학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초등학교생들의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와 우울한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43]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가 확인된 만큼 초등학교생들이 자신의 충동성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교생의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생의 개인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개인요인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연구[36]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44]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나 적극적 대처 같은 긍정적인 개인요인을 가진 초등학교생들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발달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충동성을 보다 잘 조절해 자살행동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과 같은 개인요인은 훈련과 상담을 통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의 개인요인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경로들을 마련해야 하겠다.

두 번째 보호요인인 초등학교생의 가족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가족요인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부모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연구[37]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45]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충동적인 초등학교생이라도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믿음과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낮은 자살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춘기를 막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예전과 다른 자녀의 행동과 태도에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자녀의 태도가 충동적이라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오고 갈 확률이 크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춘기 자녀의 특징과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 가족요인을 보다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세 번째 보호요인인 초등학생의 또래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또래요인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고한 연구[38]와 친밀한 친구관계가 청소년 자살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21]와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또래와의 관계가 초등학생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 만큼 충동성을 가진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기술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호요인인 초등학생의 학교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학교요인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21]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지가 자살사고에 보호요인임을 밝힌 연구[35]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교사의 지지가 초등학생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살행동을 완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과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와의 별거, 방임, 무관심 등 가족요인이 빈약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부모의 참여 의지가 없어 부모상담이나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며,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충동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와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충동적인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이 지역 특정적이었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차후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을 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4가지 차원의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만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충동성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나 아직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S. Youm, K. M. Kim, "Survey report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for young children & youth index in Korea," 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 2018.
- [2] Reynolds, W. 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8.
- [3] H. Y. Kang, K.H. Yang, "Path analysis on variables of suicide ideation in the adolescent: focusing on depression and self-concep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539-554,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1.201302.539>
- [4] J. H. Jung, H. I. Kwon, "Risk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s of adolescents in rural areas," *Studies on Korean Youth*, 28(3), 5-28, 2017. DOI: <https://doi.org/10.14816/sky.2017.28.3.5>
- [5] G. S. Yoon, "The influence of attitude toward suicide on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of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Jeonju University, 2016.
- [6] Mishara, B. L., "Conceptions of death and suicide in children ages 6-12 and their implications for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105-118, 1999.
- [7] E. K. Kim, "The risk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age groups among the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8(1), 42-50, 2018. DOI: <https://doi.org/10.15384/kjhp.2018.18.1.42>
- [8] S. K. Hwang, G. S. Lee, H. J. Lee, "Development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7.
- [9] S. O. Kang, "A Study on the effect of juvenile'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Kangnam University, 2010.
- [10] Newsis News, "An era of suicide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2016. 8.8.
- [11] Brent, D. A., Johnson, B. A., Perper, J., Connolly, J., Bridge, J., Bartle, S., Rather, 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8), 1080-1086, 1994.
- [12] Hawton, K.,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Newbury Park, CA: Sage Rress, 1986.

- [13] O'Donnell, I., Farmer, R., Catal, J., "Explaining suicide: the views of survivors of serious suicide attemp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6), 780-786, 1996.
DOI: <https://doi.org/10.1192/bjp.168.6.780>
- [14] J. H. Ko, K. R.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85-212, 2007.
- [15] E. J.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juvenile delinquency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Unpublished master's,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5.
- [16] B. K. Park, "Family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 of Human Ecology*, 11(1), 1-17, 2007.
- [17] Y. S. Hong,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 7-33, 2005.
- [18] Y. S. Jo,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that affect suicidal ideators," Unpublished master's, Dong-A University, 2008.
- [19] H. J. Hwang, J. Y. Lee,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777-800, 2016.
DOI: <https://doi.org/10.23844/kjcp.2016.08.28.3.777>
- [20] E. J. Kim, "The Study on Socio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Suicide Impulse of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Cheongju University, 2002.
- [21] J. Y. Park, "Adolescent Suicidal Crisis and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1.
- [22] S. H. Oh, C. H. Lee, "A study on discriminant factors of juvenile suicide impuls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6(2), 147-170, 2010.
- [23] S. G. Kim, "The effect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adolescent suicide -based on mediation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9, 66-93, 2008.
- [24] J. Y. Le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ors for children : problem behaviors,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1), 163-175, 2004.
- [25] J. N. Kim, Y. O. Nam, "The influence of school-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uicide behavior in early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4), 83-104, 2013.
- [26] D. K. Moon, Y. H. Kim,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protective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0), 59-83, 2012.
- [27] Kandel, D., Raveis, V., & Davies, M.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1991.
DOI: <https://doi.org/10.1007/bf01537613>
- [28] H. J. Shin, I. J. Chung, S. A. Lee, H. Y. Lee, J. Y. Park,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 25-50, 2014.
- [29] K. H. Lim,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Korea University, 2015.
- [30] Y. S. Hong, S. Y. Jeon,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2005.
- [31] I. J. Chung, J. Y. Park, E. Y. Kim, "Factors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School Youth and Out-of-School Youth,"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 222-251, 2010.
- [32] Pettit, J. W., Green, K. L., Grover, K. E., Schatte, D. J., & Morgan, S. T. "Domains of chronic stress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inpatient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3), 494-499, 2011.
DOI: <https://doi.org/10.1080/15374416.2011.563466>
- [33] H. S. Park, "The impact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1, 23-52, 1998.
- [34] E. J.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Gachon University, 2018.
- [35] K. W. Par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Stress of schoolworks, bullying from peer groups, and social supports," Unpublished master's, Soongsil University, 2013.
- [36] J. N. Kim, Y. O. Nam, "The influence of school-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uicide behavior in early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4), 83-104, 2013.
- [37] J. 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ulsivity, aspects of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3), 1-22, 2013.
- [38] Y. S. Park, "Protective and Risk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 An Approach Centered on School-Related Stress, Parent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for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 221-251, 2009.
- [39] S. K. Hwang, "2016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6.
- [40] Y. J. Kim, "A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
- [41] KCDC,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2015.
- [42] N. R. Jang, "The Effect of Depressive Adolescent's Impulsiveness on Suicidal Ideat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Middle/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3.

- [44] S. H. Lee, J. S. Chun,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12, 173-202, 2012. DOI: <https://doi.org/10.16935/ejss.2012.28..006>
- [45] J. Y. Kim, K. Y.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5), 121-149, 2016.

김 현 정(Hyun-Jung Kim)

[정회원]



- 2003년 8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석사)
- 2014년 2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박사)
- 2011년 5월 ~ 2015년 2월 : 현대해상 물센터 행복윙터 실장
- 2015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주시경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감정노동, 기업상담, 진로상담